

#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642호  
2018. 1. 8

## 정책동향

■ 대형 건설공사, 사전(事前) 분쟁 해결 제도 필요

## 시장동향

■ 외국인 건설 근로자, 공종별·직종별 편중 현상 심각

■ 2017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 분석

## 산업정보

■ 2018년 건설기업 신년사를 통해 본 경영 화두

■ 2018년 김정은 신년사에 나타난 건설 관련 경제계획

## 건설논단

■ 새해를 '생산성 혁신 원년(元年)'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대형 건설공사, 사전(事前) 분쟁 해결 제도 필요

- 건설 분쟁은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분쟁 처리는 효율성 제고해야 -

### ■ 건설 분쟁 처리의 재판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ADR 확산

- 건설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의 참여, 공사계약 내·외부의 영향과 계약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 공기(工期) 준수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 등으로 인하여 분쟁 발생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가짐.
  - 공사 기간 중에 갈등과 분쟁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 여부를 좌우하는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이미 선진국에서는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기존 재판절차를 대신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발전되어 왔음. 국내에서도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일종인 조정이나 중재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에 도입되었음.

### ■ ADR의 현실 적용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 제기

- ADR이 도입된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건설 분쟁 처리를 위한 이용률이 높지 않아 실질적 기능을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도적 보완, 공공부문의 적극적 활용, 사회적 인식의 전환 유도 등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음.
  - 갈등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은 현장 해결 혹은 적시(適時) 해결을 통한 사전적 대응이 경제성, 효율성,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임.
  - 그러나 기존의 재판제도나 ADR 모두 ‘사후적 처리’ 방식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의 분쟁 발생 ‘이전 및 이후’의 효과적인 대응시스템으로서 발주자와 시공사 등 공사계약의 당사자 모두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분쟁심의회위원회(DRB, Dispute Review Board)’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 DRB는 사전 분쟁 해결 기능 중심의 미래지향적 ADR

- DRB는 미국 워싱턴 주 ‘바운더리 댐(Boundary Dam)’ 건설공사에서의 분쟁 처리를 위한 대안모색이 그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미국 콜로라도 주 Loveland Pass에 있는 고속도로상의 ‘아이젠하워 터널’ 공사 분쟁 처리 과정에서 DRB 개념이 구체화됨.
- DRB는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시작됨과 동시에 공사현장에서 최초 구성회합을 갖고 업무에 들어가며, 건설현장의 정기적 방문과 사안별 심의(evaluation) 진행, 권고 의견(recommendation) 제시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DRB의 역할은 DRB 심의위원이 심의를 통해 분쟁당사자에게 해당 분쟁에 대한 독립적이고 비구속적인 효력을 가진 권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분쟁 발생을 예방하거나 현장에서 분쟁 사안의 즉각적인 해결을 도모한다는 데 있음.
  - 계약당사자 사이에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충돌 혹은 분쟁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교착상태에 빠지기 쉬운 기존의 협상이나 중재, 소송 같은 분쟁 해결 수단 사이의 넓은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도 함.
- 현재 DRB는 미국을 비롯한 지구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건설공사 쟁점 사항이나 분쟁의 사전 대처 및 해결을 위한 독창적인 수단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음. 적용대상 공사도 터널 및 교량 공사에서부터 공항, 건물, 열병합 발전소, 도로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상업적 건설 분야를 망라하고 있음.
  - DRB는 전 세계에서 2,000개 이상 글로벌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2007년 기준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사용되어 98.7%가 분쟁 없이 완료됨.

## ■ 국내에도 DRB의 공식적인 도입 및 활용 필요

- DRB는 분쟁의 사전 예방 혹은 방지의 효과가 탁월한 기능을 가지면서도 현장 중심의 적시(適時) 해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장 중심 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DRB는 단순히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갈등이나 분쟁의 출현 초기단계에 조기 개입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사이에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하는 효과도 강력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공사수행 및 책임시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두성규(선임연구위원 · skdoo@cerik.re.kr)

## 외국인 건설 근로자, 공종별·직종별 편중 현상 심각<sup>1)</sup>

- 종합적인 내국인 건설 근로자 육성 전략 수립해야 -

### ■ 공종별로는 건축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비중이 가장 높아

- 건축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11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토목 5만 1,000명, 플랜트 1만 6,000명 순으로 분석됨(<표 1> 참조).
- 건설근로자공제회 데이터베이스<sup>2)</sup>를 기반으로 추정된 결과,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약 17만 7,000명으로 분석됨. 외국인 비중은 전체 건설근로자의 약 10.1% 규모임. 산업인력공단(2016)<sup>3)</sup>의 공종별 도입 실태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추정함.

<표 1> 공종별 외국인 근로자 실태

(단위 : 명)

공종	외국인 근로자	비중
토목	51,358	29.0%
건축	110,447	62.3%
플랜트	15,584	8.8%
합계	177,389	100.0%

주 : 2017년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 DB의 2015년 값을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로 연장한 수치이며, 산업인력공단(2016)의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추정함.

### ■ 직종별로는 용접공, 기타 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 높아

- 용접공과 기타 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특히, 소위 힘들고 임금이 높지 않은 형틀목공, 철근공 등에서 외국인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표 2>에서는 직종별 외국인 근로자 규모 및 전체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을 도출함.
- 외국인 도입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은 형틀목공(30.7%)이며, 가장 낮은 직종은 용접공(2.8%)으로 분석됨.

1) 본고는 우리연구원에서 발간한 나경연·최은정(2017), 「2018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규모 산정연구」, 건설이슈포커스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함.

2) 건설근로자공제회 DB는 공공공사 3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건설현장에서 약 23.7% 정도가 누락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비례적으로 보정하기 위해 보정계수로 1.31배하여 분석함.

3) 산업인력공단(2016), 「2017년도 건설업 취업동포 적정 규모 산정」,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조.

-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전체 직종별 비중보다 외국인 내에서 특정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가 있는 직종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이들 직종을 비교우위의 순서대로<sup>4)</sup> 나열하면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석공(타일공), 방수공으로 나타남. 반면, 상대적으로 내국인이 비교우위가 있는 직종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용접공, 배관공, 기타 직종, 도장공 순으로 나타남.

<표 2> 직종별 내·외국인 비중 및 외국인 근로자 실태

(단위 : 명)

직종	내국인 내 직종별 비중	외국인 내 직종별 비중(A)	전체 직종별 비중(B)	현시비교우위지수 (RCA=(A)/(B))	외국인	전체 (내국인+외국인)	외국인 비중
형틀목공	7.0%	27.7%	9.1%	3.0	49,169	160,213	30.7%
철근공	5.3%	11.5%	6.0%	1.9	20,422	105,133	19.4%
콘크리트공	1.2%	2.2%	1.3%	1.7	3,957	22,263	17.8%
석공(타일공)	1.9%	2.2%	1.9%	1.2	3,951	33,883	11.7%
방수공	1.2%	1.5%	1.3%	1.2	2,623	22,336	11.7%
도장공	1.7%	1.3%	1.7%	0.8	2,354	29,390	8.0%
용접공	1.3%	0.3%	1.2%	0.3	607	21,848	2.8%
배관공	7.1%	4.0%	6.8%	0.6	7,159	119,557	6.0%
기타	73.7%	49.9%	71.3%	0.7	88,496	1,258,520	7.0%
합계	100.0%	100.0%	100.0%		177,389	1,764,787	10.1%

주 : 2017년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 DB의 2015년 값을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로 연장한 수치임.

- 노동 시장 상황(공종별·직종별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실태)과 임금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내국인 건설 근로자 육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외국인 근로자 도입 비중이 약 20%를 상회하는 형틀목공, 철근공에 대해서는 장기적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전략적으로 내국인이 비교우위가 있는 직종을 중심으로 내국인 육성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내국인이 부족한(외국인이 다수 도입된) 직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됨.
  - 종합적·체계적인 내국인 건설 근로자 육성 전략이 마련되면, 이에 맞춰 공종별·직종별 외국인 도입 규모의 재배분(reallocation)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 육성 방안과 이에 따른 보완 수단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방안 간 상호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나경연(부연구위원 · econa@cerik.re.kr)

4)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는 세계의 전체 수출시장에서 특정 상품(서비스 포함)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로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함. 이를 내국인과 외국인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입하면 동일한 의미를 얻을 수 있음.

## 2017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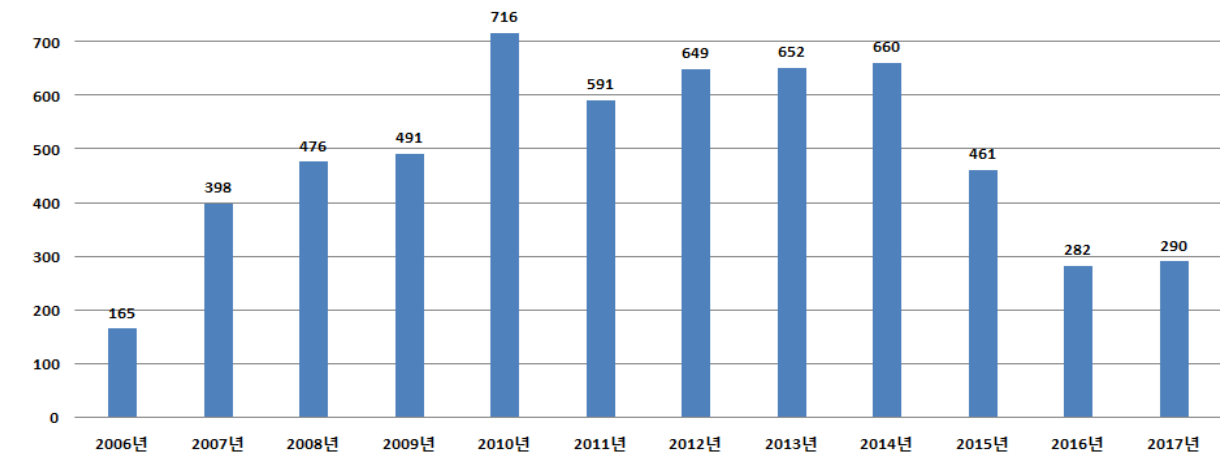
- 2년 연속 300억 달러 하회, 2018년 반등 전망되나 역량 기반 수주 확대해야 -

### ■ 2015년 대비 39% 감소한 282억 달러를 기록한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부진 지속

- 2017년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8억 달러 증가한 290억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쳐 2년 연속 3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함(<그림 1> 참조).
  - 전년보다 배럴당 평균 10~15달러 상승한 국제유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기업의 수주 부진은 2017년에도 지속되었음.
  - 플랜트와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수주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면, 현재의 수주 부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그림 1> 해외건설 수주 실적 추이

(단위 : 억 달러)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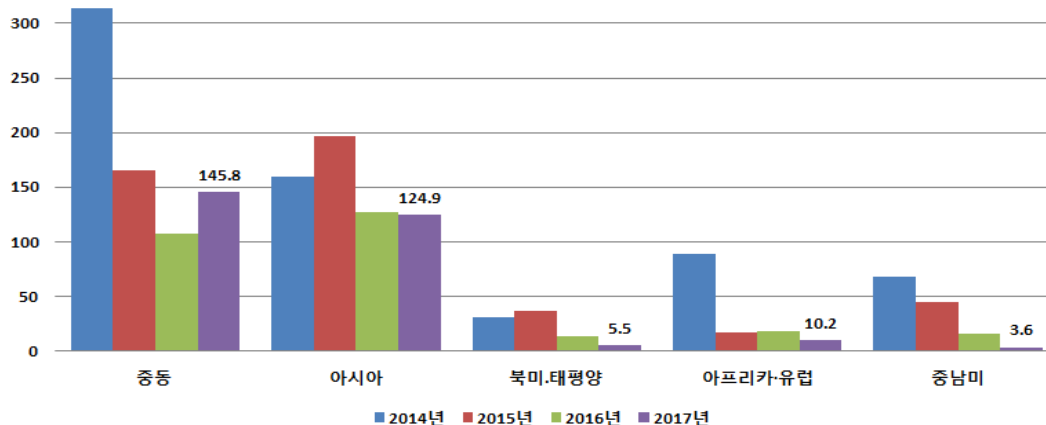
### ■ 중동 시장과 플랜트 부문의 수주액은 전년 대비 각각 36.3%와 50.3% 증가

- 2016년에 106.9억 달러를 기록한 중동 시장은 전년 대비 36.3% 증가한 145.8억 달러(전체 수주의 50.3%)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함(<그림 2> 참조).
  - 아시아 시장은 전년(126.8억 달러)과 비슷한 124.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주의 43.1%를 차지함.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수주 비중은 전체의 93.4%를 기록함.
  - 반면에 중동과 아시아를 제외한 시장의 수주 규모는 모두 하락함. 전년 대비 북미·태평양 시장은

8.3억 달러, 아프리카·유럽 시장은 8.1억 달러, 중남미 시장은 12.6억 달러 감소하였음.

<그림 2> 최근 4년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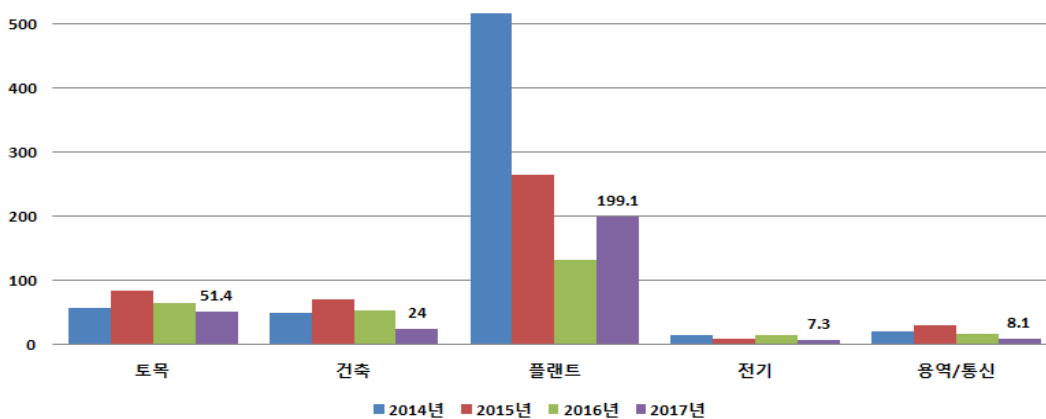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공종별로는 플랜트 수주액이 199.1억 달러로 전년 대비 50% 증가한 반면에 토목과 건축은 전년 대비 13억 달러와 29.3억 달러 감소함(<그림 3> 참조).
- 지역별 수주 비중과 마찬가지로 공종별로도 플랜트 비중이 68.7%까지 확대되면서 수주 구조의 기형화는 오히려 심화되었음.

<그림 3> 최근 4년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 실적

(단위 : 억 달러)



## ■ 시장 환경 개선에 따른 수주 증가보다 역량 기반의 수주 확대 필요

- 2018년 수주 규모는 전년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발주 물량의 증가에 따른 수주 확대 보다는 기업의 수주 역량이 근간이 되었을 때 수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영국 원전사업의 수주가 유력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2018년 수주 규모는 전년대비 반등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단발성 대형 사업에 기인한 수주 증가가 국내건설기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됨.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 2018년 건설업체 신년사를 통해 본 경영 화두

- 2018년 건설업체 화두는 '혁신', 최고 경영자의 의지 가장 중요해 -

### ■ 2018년 건설업체의 키워드는 '혁신', '윤리경영' 및 '안전'

- 2018년 경영 환경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환경 변화,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엔저(円低) 지속 및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그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특히, 건설업의 경우 국내 SOC 예산 감소, 건설 수주 감소 심화,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시장 상황은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대형 건설업체의 경영자들은 신년사를 통해 2018년은 '혁신'과 '윤리경영' 및 '안전'에 중점을 두겠다고 입을 모았음.
  - <표 1>과 같이 국내 대형 건설업체의 경영자들은 올 해 4차 산업혁명 등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조직 재정비를 바탕으로 질적 쇄신을 해야 한다고 말함.
  -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윤리 경영'와 '안전'의 중요성도 강조함.

<표1> 국내 주요 대형 건설업체의 2018년 신년사 내용<sup>1)</sup>

업체 명	주요 내용
대림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천과 체화를 통한 혁신의 완성</li> <li>■ 협력업체 상생과 현장 안전</li> </ul>
대우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인수합병을 앞두고 기업의 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노력 필요</li> <li>- 조직 문화 재정립 :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 본연의 조직 문화 회복 필요</li> <li>- 기업가치 제고 및 실행 : 업무수행 효율성 향상 위한 조직 개편 수익성 확보 위한 사업포트폴리오 개편</li> <li>- 현장 문화 중심 : 모든 현장에서 시공, 원가, 품질 관리 등을 통해 수익 창출의 전진기지 역할 수행 필요</li> </ul>
롯데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가치 향상 : 신산업에 유연하게 대응</li> <li>■ 지속가능경영 강화 : 사업부문별 핵심 경쟁력 확보 및 지원 조직 강화, 상생 협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li> <li>■ 기업문화 개선 :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역동성과 배려의 문화 유지</li> </ul>

1) <표1>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를 기준으로 상위 10위권 내 속하는 7개 종합건설업체의 신년사를 요약, 정리한 것임.



업체 명	주요 내용
SK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적 가치 창출의 원년</li> <li>■ 건축주택 사업 : 시장의 위축에 대비해 새로운 상품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준비</li> <li>■ 인프라 사업 : 지하 공간·철도교량 등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li> <li>■ 발전 플랜트 : 국내 사업을 기반으로 수행 경쟁력 향상</li> <li>■ 개발사업 : 민관협력사업(PPP)를 통한 확대 주력</li> </ul>
GS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의 지속적 역량 강화</li> <li>■ 미래 성장 동력 발굴</li> <li>■ 배우고 진화하는 조직문화 구축</li> </ul>
포스코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Smart Innovation 1.0'</li> <li>- 첫째, 기존 EPC에 FEED(Front-End Engineering Design)와 Smart를 장착한 '차별화 혁신'</li> <li>- 둘째,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원가혁신'</li> <li>- 셋째, '경영시스템 혁신'</li> <li>- 마지막으로, '윤리경영'과 '안전' 중시</li> </ul>
현대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출발(Restart) 한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li> <li>- 회복(Recover) :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소명의식, 장인정신을 다할 것</li> <li>- 재설계(Redesign) : 시장 변화에 맞춰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리디자인</li> <li>- 재점화(Relight) :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안전의식과 윤리의식 확립</li> </ul>

주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를 기준으로 상위 10위권 내 속하는 7개 종합건설업체의 신년사를 요약, 정리한 것임. 가나다 순.

## ■ 조직 내 변화를 위해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

- 2017년 주요 대형 건설업체의 경영 화두는 '생존'이었음. 즉, '수익성 중심의 사업'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건설시장의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였음.
  - 또한, '역동적인 조직 문화'와 '인재 육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그 밖에 '윤리 경영 강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업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함.
- 사회적·정치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건설업체 경영자들은 올 한 해 화두를 '혁신'으로 설정하고 각 사의 전략들을 내놓음.
  - 조직의 유지, 발전, 존속을 위해서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키워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임. 리더십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기업의 윤리 의식 확립에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워렌 버핏(Warren Buffet)은 기업의 윤리경영의 필수적인 요소로 최고 경영자의 윤리적 역할을 강조하였음.
  - 기업의 장기비전이나 전략 수립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은 핵심적인 역할을 함. 따라서 윤리 경영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과 믿을 가진 경영자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함.

최은정(부연구위원 · kciel21@cerik.re.kr)

## 2018년 김정은 신년사에 나타난 건설 관련 경제계획

-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 참가 시사,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등 -

###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시사 발언<sup>1)</sup>과 남북 대화 재개

-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고, 남북한 간의 대화가 진전될 경우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개를 기대할 수 있음.
  - 통일부는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측 참가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며 “여러 가지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sup>2)</sup>

### 2018년 신년사에서 북한 경제의 자립성 강화 및 인민 생활의 개선 언급

- 신년사에서 전력, 금속, 철도, 경공업 등 경제 분야별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주요 건설사업으로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건설’, ‘삼지연 군꾸리기<sup>3)</sup>’, ‘단천 발전소 건설’,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 ‘살림집(주택) 건설’을 제시

<표 1> 2018년 신년사의 경제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전력	- 새로운 동력자원 개발 / 화력발전 확대 / 발전설비 정비 및 보강 / 전력 손실 최소화 - 지방의 중소형수력발전소 정상화
금속, 화학, 기계	- 금속 : 철생산 능력 확대로 철강재 수요 충족 / 금속재료의 질 향상 - 화학 :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 / 희망초를 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장 완비 / 린비료공장 건설 - 기계 : 금성뜨락또르(트랙터) 공장,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등 기계공장의 현대화
철도, 경공업	- 철도 : 열차의 수송능력을 최대화 / 열차의 무사고 정시운행 보장 - 경공업 : 설비·생산공정을 노력 및 전기절약형으로 개조, 국내원료·자재로 생산 공급
농업, 수산업	- 농업 : 우량종자와 다수확농업, 농기계 확충, 축산물·과일·온실 남새(채소)·버섯생산 증대 - 수산업 : 배무이(제조), 배수리 능력 향상, 양어와 양식 활성화
국토	- 기 조성된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 - 도로의 기술상태 개선 / 강하천 정리

1)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2018년도 김정은 신년사).

2) 연합뉴스, ‘정부,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9일 판문점 개최 북에 제의’, 2018.1.2.

3) 백두산 남동방향 랑강도 삼지연군 개발사업, 혜산-삼지연 철도공사, 백두산종합박물관, 감자가루 생산공장, 부사마감건재중간생산기지 건설 등 추진(통일뉴스(www.tongilnews.com), ‘북, 혁명성지 삼지연군꾸리기 사업 본격화’, 2017.2.22.).

##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집중, 북한 경제 전반의 활성화 추진

-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 제껴야 하겠습니다.”라며 경제 부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함.
- 지난 2016년 5월, 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에서 향후 5년(2016~2020년)간의 북한 경제 발전 로드맵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함(<표 2> 참조).

<표 2>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소 생산 공정과 설비를 정비하고 보강 / 송배전망 개선, 보수</li> <li>- 건설 중인 발전소 조속 완료, 단천 발전소 최단기간 내 준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li> <li>- 친환경 에너지(풍력, 조력, 바이오, 태양에너지) 이용 및 확대</li> </ul>
석탄, 금속,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탄 : 신탄광 개발, 종합적 기계화 운반의 다양화 실현, 효율적 채광방식 도입 등</li> <li>- 금속 : 동력공급 책정, 철광산 생산력 확장, 합금강 및 규격강의 품종 다양화 등</li> <li>- 철도 : 철도망 완비, 철도의 고속화 추진, 철도시설의 근대화, 관리운영의 정보화 등</li> </ul>
기계, 화학,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 : 기존 기계설비 기능 개선, 신형 근대적 설비 설계 및 제작</li> <li>- 화학 : 비료 및 기초 화학제품 생산의 정상화, 국내자원에 의거 생산기지 건설</li> <li>- 건설 : 기념비 등 건축물을 최고수준·최단기간 내 건설 완료, 설계·장비·공구 등 근대화 실현</li> <li>- 건설자재 : 공장·기업 현대화, 건축자재 생산의 전문화·전통화, 건축자재의 다양화·국산화</li> </ul>
농업, 수산업, 경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 과학적 농업으로 곡물생산목표 달성, 지역특징에의 의해 작물과 품목 배치, 농업 기계화</li> <li>- 수산업 : 수산물 생산목표 달성, 어류가공시스템과 설비전력 관리시스템 구축</li> <li>- 경공업 : 지식경제시대 모델 도입, 원료와 원자재의 국산화,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 주력 등</li> </ul>
국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복구 사업 추진 / 목목생산 선행</li> </ul>
대외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 준수, 가공품 수출과 기술무역, 서비스 무역 비중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무역구조 개선</li> <li>- 합영, 협력에서 주체적 입장을 고수, 선진 기술을 취득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li> <li>- 경제개발구에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 및 관광 활성화 실현</li> </ul>

자료 :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 ; 대한무역진흥공사(www.kotra.or.kr) 북한정보, 김정은 시대의 첫 '경제발전 5개년 전략', 2017.6.5.

## ■ 남북한 간 대화가 시작되고, 정치·군사적 긴장관계 해소시 남북협력사업 재개 기대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한 북한이 모색하고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완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현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경제통일 구상<sup>4)</sup>’을 제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건설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박용석(연구위원 · yspark@cerik.re.kr)

4)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제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 p. 131.

## 새해를 '생산성 혁신 원년(元年)'으로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이나 목표는 희망적이다. 경제성장률은 3.0%,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다수 민간기업은 새해 경기를 어렵게 보고 있다.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업부담이 새해부터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과 같은 정부 정책들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가장 바람직한 기업의 대응전략은 생산성 혁신이다.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은 민간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과제다.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수익성이 하락하게 되면 임금 인상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 적자 상태에 빠진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인력 구조조정이고, 임금 동결 내지 반납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은 정부가 혁신성장 정책에서 제시한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확산하는 일이다. 정부는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획기적인 개혁 작업부터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계화·자동화를 추진하게 되면 고용이나 인력 투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 공장 건설이 확산되고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사람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런 우려가 '기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의 실업률은 2017년 12월 현재 17년만의

최저 수준인 4.1%로 떨어졌다. 조만간 미국의 실업률이 4%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일본의 실업률도 11월 현재 2.7%로 199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아베 총리 집권 후 5년간 일자리는 330만개 늘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맞다면 지난 10년간 미국과 일본의 실업자 수는 크게 늘었어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생산성 혁신으로 민간기업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이 이뤄졌다.

민간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의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이나 혁신성장 정책의 승패도 생산성 혁신에 달려있다. 특히 우리는 제조업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혁신이 중요하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45.1%(2014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프랑스(87.8%) 미국(82.6%) 영국(80.8%)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매킨지글로벌연구소(MGI)가 올해 초 발표한 생산성 보고서를 보면, 서비스산업의 하나로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우리 건설산업의 생산성도 너무 초라하다. 조사대상 41개국 중 19위였고(2015년), 20년간에 걸친(1995~2015년) 타 산업 노동생산성 성장률과의 차이는 40위로 사실상 꼴찌였다. 건설산업도 디지털화 등을 통해 획기적인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2018. 1. 2>

이상호(원장 · shlee@cerik.re.kr)